

심우도의 사실적 구현에 관한 연구

- 홍인의 심계(心偈) 작성 지시의 의도 -

신 지 하*

동국대학교(경주)

【요약】

이 글은 심우도 속에 나타나 있는 설화적인 선의 구도과정을 현실적인 세계의 선수행의 진실적인 모습을 담기 위해서 혜능과 홍인의 사실감 있는 수행과 지도의 과정을 중국의 살아 숨쉬는 돈황문서들 중에 돈황본 『단경』에 입각해서 재구성하여 보았다. 심우도가 선종의 중요한 수행의 방침이지만 단지 이상적인 세계 속의 영상으로 존재하는 현실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끼면서 본인이 전공한 선사상을 접목을 시켜서 심우도에 생명을 싣고자 하였다. 이 심우도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심우도 자체의 각각의 가치를 평하는 것은 너무나 큰 작업이었으므로, 심우도에 대해서 송을 지은 선사들의 귀중한 한시들을 참고로 하여서, 보명의 심우도의 쌍민의 10단계의 4구의 마지막 한자로써 모일 총자를 사용하고 있는 점에서, 사료들에 입각하여 혜능의 견성의 선사상과 모일 총자가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고 본 논문은 가정하고 출발을 한다. 물론 여기에 대한 더욱 정확한 한시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가 깊이 있게 될 필요가 있지만 본 논문은 심우도의 전개과정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였다. 보명의 심우도에 대한 점수론적 평가들이 있지만 여기에 대한 논점은 본 논문에서 다루지 않는다.

주제어 : 심우도(尋牛圖), 심계(心偈), 혜능, 홍인, 『단경』

* 동국대학교(경주) 일반대학원 불교학 박사 수료, syw11250@hanmail.net

I. 들어가는 말

혜능은 『단경』에서 항상 선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단경』에서 혜능을 지도하였던 선지식[조사(祖師)]인 홍인의 선수행법의 의미와 가치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연구하고자 한 논문은 전무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선종의 5조인 홍인의 선수행 지도법을 『단경』에 기록된 대중들에 대한 지도법으로부터 혜능에 대한 선수행의 지도법을 심우도의 선으로써의 『단경』과 혜능에 관한 기존의 논문과 서적들에서 언급하지 않은 불립문자, 교외별전, 이심전심의 선종 기치에 해당하는 심게 작성 지시의 의도에 대한 의미를 해석, 『단경』에 숨겨져 있는 혜능 심게(心偈) 제작 원인과 과정, 결과에 대한 해석을 〈표 13〉 작게(作偈)를 지시한 홍인의 선법(禪法)에 대한 해석으로 제시하였다. 심우도를 관점의 체계로 삼은 원인은 『단경』에서 일회적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었던 홍인의 선수행 지도법에 대한 전체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역대 어록과 문헌, 논문 등에 공안의 형식과 지도법으로 정의하지 않은 내용을 심우도를 통해서 심도 있게 연구하여 『단경』 속에 들어있는 선지식의 혜안과 지도법을 심우도의 10단계로써 본문의 전개과정을 통해서 제시, 결론에서 〈표 11〉·〈표 12〉·〈표 13〉을 통해서 명확하게 제시하였다.

이 글은 오조 홍인¹⁾이 혜능²⁾에게 심게를 완성하게 한 점을 ‘심우도의 선(禪)³⁾’으로 해석[은유(Metaphor)로써의 해석]을 통해서 홍인과 혜능의 눈에 비친 심법(心法)의 세계인 심우도⁴⁾의 세계를 그려보고자 하였다. 심우도⁵⁾라는 것은 10단계의 과정을 통해

- 1) McRae, John R, *The Northern School and the Formation of Early Ch'an Buddhism*,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86, p. 35.
- 2) 敦煌本 『壇經』(T48) p.337a. “惠能大師”
- 3) Harvey, Peter, *An introduction to Buddhism. Teachings, history and practic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pp.159-169.; Dumoulin, Heinrich(2005), *Zen Buddhism: A History. Volume 1: India and China*, Blooming-ten, World Wisdom Books, p.xvii.
- 4) 『普明禪師牧牛圖頌』 第1卷(J23) pp.347a-355b.
- 5) 심우도에 관한 연구들과 관련된 서적들을 정리하면 아래 〈각주 표 1〉과 같았다.

〈각주 표 1〉 심우도에 관한 연구들

저자	제목	발행사항
柴山全慶	『十牛圖』	東京: 弘文堂. 1941
橫山敏一	『심우도. 마침내 나를 얻다』	서울, 들녘, 2001.
장순용	『禪이란 무엇인가: 十牛圖의 사상』	서울, 세계사, 1992.
전석헌	『선화에 관한 연구: 廓庵禪師 十牛圖를 중심으로』	東國大學校 불교문화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오선아	『심우도연구』	東國大學校 불교문화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김남희	『심우도연구』	東國大學校 석사학위논문, 1996.
이기영	『廓庵의 十牛圖』	서울, 한국불교연구원, 1995.
김운학	『심우송에 관한 고찰』	『불교학보』제 16집,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1979.
곽암	『심우도』	서울, 경서원, 2003.

서 마음을 깨쳐서 도를 증득하는 과정을 묘사한 것이다.⁶⁾ 보명의 심우도에 대한 계송을 기록한 중요 10인의 선사들은 심우도의 선적인 가르침에 대하여 각자의 송⁷⁾을 만들었으며, 이 계송들의 공통점은 혜능⁸⁾의 견성관과 동일한 결론으로 송이 마무리되고 있었다.⁹⁾ 즉, 계송의 10단계인 쌍민의 4구의 마지막 한자가 모두 동일하다는 것이었다. 그 글자는 총(叢)자로써 모일 총자를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강물이 모여서 지류가 바다로 하나로 모이는 것을 견성¹⁰⁾이라고 정의한 혜능의 『단경』¹¹⁾의 비유에서와 같은 견성의 궁극적인 뜻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오조 홍인이 육대조의 자리를 한자 문화권의 선사상 완성을 통해, 심법(心法)을 한자(漢字)로 적은 심게(心偈)로써 완성시키고자 한 노력의 결과가 결국 조사들의 법을 전수하고자 한 의지로써, 중국의 불법이 인도와 달리 불타¹²⁾이래로 몰락¹³⁾하지 않으면서 중국적 선법으로써, 선종의 조사선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심법(心法)의 전수과정이었던 선수행 지도법을 『단경』과 『금강경』, 『보명선사목우도송(普明禪師牧牛圖頌)』을 중심으로 하여 고찰하여 보았다. 심우도를 관점의 체계로 삼은 원인은 『단경』에서 일회적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었던 홍인의 선수행 지도법에 대한 전체적인 관점 즉, 심우도 속에 불타의 심법을 지도하여 완성하는 과정이 단순한 일회성이 아닌 10단계로써 은유적으로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6) 『十牛圖頌』 第1卷(X64) p.775b. “十牛圖者，蓋禪宗託喻於，以修心證道者也。”

7) 『十牛圖和頌』 第1卷(X64) pp.777a-777c.

8) McRae, John(2012), *The Platform Sutra of the Sixth Patriarch*, Translated from the Chinese of Zongbao, Berkeley, Numata Center for Buddhist Translation and Research, pp.65-66.

9) 참고문헌 : 『十牛圖和頌』 第1卷(X64) pp.777a-777c.

〈각주 표 2〉 보명 목우도에 대한 계송의 저자들

牧牛圖頌	계송 저자	雙泯 마지막 계
一 偈頌	杭州眞寂 聞谷廣印 禪師	風落岩花點翠叢
二 偈頌	報恩 天隱圓修 禪師	枯椿春到綠叢叢
三 偈頌	東塔 破山海明 禪師	東風吹起自叢叢
四 偈頌	萬如通微 禪師	子規聲斷落花叢
五 偈頌	東塔 浮石通賢 禪師	一輪明月照幽叢
六 偈頌	玉林通琇 禪師	早知芻犬吠茅叢
七 偈頌	簪菴通問 禪師	日高香散百花叢
八 偈頌	山茨通際 禪師	枯木重開花一叢
九 偈頌	桐月菴 玄微妙用 禪師	蜂蝶痴迷花底叢
十 偈頌	一指菴 香幢明海 禪師	百花何處聞芳叢

10) 敦煌本『壇經』(T48) p.340b. “猶如大海，納於衆流，小水大水，合爲一體，即是見性。”

11) 敦煌本『壇經』(T48) pp.337a-345b. “南宗頓教最上乘摩訶般若波羅蜜經六祖惠能師於韶州大梵寺施法壇經一卷”; Schlütter, Morten, and Enlightenment in Chan Buddhism Seen Through the Platform Sūtra”, *Chunghwa Buddhist Journal. Taipei* (20), p.385.

12) Warder, AK, *Indian Buddhism*, Delhi, Motilal Banarsidass, 2000, p.45.

13) Richard P. Hayes, Buddhist Philosophy, Indian, *The shorter routledge encyclopedia of philosophy*, New York, Taylor & Francis, 2005, p.112.

심우도로써 은유적으로 홍인의 선지식으로써의 선수행 지도법에 접근한 것은 은유의 필요 불가피성 때문이었다.¹⁴⁾ 혜능과 홍인의 『단경』에서의 심계의 제작과정은 수·당 시대와 인도와 중국으로의 선법의 이동, 교종과 선종의 관계, 인도어에서 중국 한자어로의 경전의 번역과 보리달마¹⁵⁾의 심법의 전수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잡한 현상이 얹혀 있는 지점이었다. 홍인은 이 모든 것을 심계(心偈) 하나로 해결한 것이었다. 이러한 홍인의 선의 지도법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심법의 세계를 논문으로 제시하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즉, 심우도의 메타포로서의 고찰과 홍인의 선수행 지도법이 그것이다. 이는 『단경』의 심계 작성 지시 의도를 새롭게 해석하여 제시한 것이다.

첫 번째, 심우도를 ‘은유(metaphor)’로 사용하였다. 영영사전인 Longman Dictionary of Contemporary English(5th Edition)에서 은유인 용어 ‘metaphor’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어떤 것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설명하려는 대상을 어떤 다른 것에 참조하여 설명하는 것으로, 설명하려는 대상이 어떤 다른 것의 참조와 동일한 질적인 특성이 있음을 기술하는 것이다.”¹⁶⁾

심우도와 『단경』에서 소와 혜능의 동일한 질적 특성을 스즈끼의 저서에서 아래의 설명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소를 찾아 나선다. 짐승은 결코 방황하지 않았으며, 그를 찾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그에게 소가 초면이 아닌 것은 소 자신이 그의 보이지 않는 불성을 가졌기 때문이다.¹⁷⁾

스즈끼가 표현한 불성¹⁸⁾이 바로 혜능과 소의 동질적 특성이다. 이점을 『금강경』을 통해서 불타와 홍인을 관련시키면서 설명하고자 하였다. 즉, metaphor를 사용하여 심법을 심우도에 비교, 설명하여 언어적 논리성 범위를 벗어난 불립문자의 심법의 세계를 『금강경』의 불타의 설법을 예시로 들면서 설명하였다.

14) Andrew M. McKinnon, “Metaphors in and for the Sociology of Religion: Towards a Theory after Nietzsche”, *Journal of Contemporary Religion*, University of Aberdeen, Volume 27, 2012, p.2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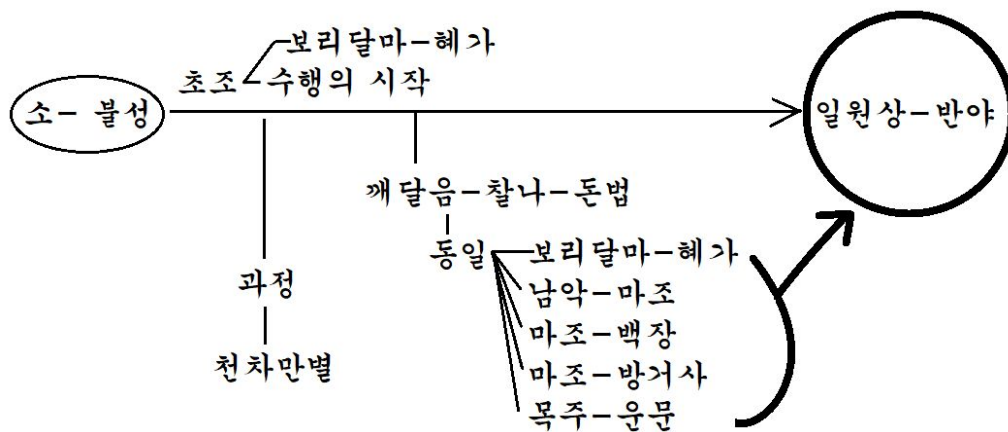
15) Broughton, Jeffrey L., *The Bodhidharma Anthology: The Earliest Records of Ze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9, pp.54-55.

16) Longman Group Limited, *Longman dictionary of contemporary English*, London, Longman, 1978.

17) Daisetz Teitaro Suzuki, *Manual of Zen Buddhism*, Kyoto, Otani University, 1935, p.90.

18) Lusthaus Dan, *Buddhist Philosophy, Chinese*. In: *Routledge Encyclopedia of Philosophy*, Index, London, Taylor & Francis, 1998, p.84.

둘째, 오조 홍인의 선수행의 지도법이 『단경』에 대의(大意)라는 단어로써 기록되어 있다. 이 단어가 『단경』 중 홍인의 혜능 지도과정 중에 7번 나온다.¹⁹⁾ 여기에서 대의(大意)는 돈법(頓法)을 의미한다. 홍인은 혜능의 심계에서 무대(無臺)의 불성의 공(空)함과 반야의 통일성을 신수 계송과의 차이점으로 보았다. 혜능의 심계가 반야지문(般若之門)과 불이문(不二門)을 통과한 것으로 보고 대의(大意)를 깨친 것, 즉 돈법을 깨친 점을 인정하여 가사와 발우를 전수하여 육대조로 삼았다. 이 과정에서 홍인의 선법이 펼쳐진 것이며 이 선법에 홍인의 심계 작성 지시 의도가 숨어 있었다. 『단경』 제작 이후로 나온 모든 해석서는 심계 작성 지시의 의도를 혜능이 불법의 심법을 깨친 후 자연스럽게 작성한 우연의 일치로 해석하고 있다. 홍인의 심계 작성 지시의 의도에 관하여 본 논문에서 심우도의 10단계와 『단경』을 상호 비유하여 해석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수행자들의 특성을 심우도의 각 장면에 맞추어 본다면 대표적인 역사적인 깨달음과 기연의 장면들이 있다.²⁰⁾



〈그림 1〉 수행자들의 특성과 심우도의 각 장면

19) ①吾看汝偈, 若吾大意者, 付汝衣法, 稟為六代. ②願和尚慈悲看, 弟子有小智惠識大意否. ③有一童子, 於碓坊邊過, 唱誦此偈. 惠能一聞知未見姓, 即識大意. ④童子答能曰, 作不知大師言. 生死是大, 欲傳於法, 令門人等各作一偈來呈看悟大意即付衣法. ⑤能即禮拜此偈. 為不識字, 請一人讀. 惠問已即識大意. 惠能亦作一偈. ⑥呈自本心, 不識本心, 學法無益, 識心見姓, 即吾大意. ⑦五謁忽見惠能但即善知識大意. 恐眾人知, 五祖乃謂眾人曰. 此亦未得了.

20) 보리달마가 혜가를 기다린 후 법을 전수한 것, 남악회양이 마조도일에게 벽돌을 갈며 거울을 만든다는 심지법문을 한 후 마조의 견성성불 후 법을 전수한 것, 마조도일이 백장에게 들오리가 얼마나 날아가는지 질문을 던진 후 코를 비틀어서 의심삼매에 들게 한 후 깨달음에 이르게 한 것, 석두가 방거사의 입을 막고, 마조도일이 방거사에게 서강수 물을 다 마셔오면 일러주리라고 한 말에 의심삼매에 들어 깨달음에 이른 것, 임제의현이 황벽에게 육십봉을 맞은 후 대우선사에게서 깨달음을 얻은 것, 운문문언이 목주선사의 문을 닫음과 발이 부러짐과 의심삼매에서 견성한 것, 운문의 운문삼전에 파룽이 정확한 답을 한 것은 조사의 깨달음의 지도방식과 과정은 다양하지만 결과는 조사들의 깨달음의 과정은 다양하지만 그 결과는 심우도의 소의 불성이 반야의 일원상으로 드러난 견성성불이었다.

심우도의 10장면은 수행의 과정의 특수성에 비추어 일반적인 과정을 추상적으로 묘사한 단점이 있다. 하지만 초심에서 수행에 들어가는 과정의 불성의 발견에서 불성의 메타포인 소(牛)가 사라지고 반야의 메타포인 일원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돈법의 한 장면으로 그리면 일원상의 출현이다. 수행자의 모든 깨달음은 동일하다. 그것은 불성이 동일하며, 반야가 동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행의 깨달음이 돈법의 깨달음의 찰나 지간이라고 할지라도, 그 과정으로 가는 길은 수행자의 인연과 근기 등의 수 만 가지 요소로 다양성을 지니고 있다. 그 과정을 최대한 단축하여 일언지하에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선수행이다. 홍인이 혜능에게 제시한 것은 방앗간의 8개월 간 울력, 심계의 지시 두 가지였다. 남악회양이 마조도일에게 제시한 것은 정적 좌선에서 동적일여 삼매와 생활 속 수행이었으며, 마조도일이 백장에게 던진 일구는 ‘들오리가 몇 리나 갔는가’라고 물음을 던진 후 바로 코를 비튼 것이었다. 목주 선사가 운문선사에게 던진 일구는 문을 닫아버려서 문에 발이 끼여 발이 부러진 것이었다. 보리달마가 혜가에게 제시한 것은 수행의 첫 단계 심우도 속의 초조로 소를 잡는 것으로 신심을 요구한 것이었다. 대우선사가 임제의현에게 요구한 것은 방망이 삼십 방을 계속 때린 후 의심삼매에 들게 한 것이었다. 모든 조사들의 선수행은 각기 다른 가르침의 과정을 가지더라도 중국의 목적은 심우도 속의 반야의 일원상이 불성의 온전한 발현에 의해 드러나는 견성 성불임은 동일하다. 심우도의 10단계로 모든 조사의 선 수행을 테두리 지을 수 없기에 시작한 혜가의 신심으로 걱정적 전환은 조사의 가르침의 일구, 최종적 깨달음은 반야의 일원상으로 소가 사라지는 장면으로 동일하다.²¹⁾ 각 깨달음의 기연에 이르는 과정은 심우도의 십(十)이 의미하는 공(空)의 완성의 추상성만큼이나 포괄적인 면이 있지만 논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선종사에서 대표적인 사건을 목우의 10단계의 제목에 각주로 달아서 설명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II. 심우도의 메타포

1. 목동의 메타포: 오조 홍인

삼조 승찬과 사조 도신의 선법(禪法)을 계승한 선사(禪師)는 바로 선종(禪宗)의 오조

21) 조사의 일구의 가르침에 관한 연구로는 김호귀(2006); 선문답에 관한 연구로 김호귀(2010); 심우도와 깨달음에 관한 연구로 신명희(2016), 신명희(2018); 선종의 법과 문헌에 관한 연구로 김호귀(2014)가 있다.

홍인이다.²²⁾ 홍인의 선사상(禪思想)을 『육조단경(六祖壇經)』이나 『능가사자기(楞伽師資記)』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추론하였고, 사실상 홍인의 선사상을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였다. 그런데 돈황(敦煌)²³⁾의 여러 전적(典籍)들이 출토되고, 후에 그 가운데 여러 종의 『수심요론(修心要論)』이 발견됨으로써 『수심요론』이 홍인의 저작으로 판명되고, 또한 그러한 『수심요론』이 종래 전래되던 『최상승론(最上乘論)』과 동일본임이 확인됨으로써 홍인의 선사상을 분명하게 밝힐 수 있게 되었다.²⁴⁾ 『최상승론』에 홍인의 법요(法要)를 살펴볼 수 있는 구절이 있다.

법의 핵심을 알고자 한다면 수심이 제일이다. 이러한 수심은 바로 열반의 근본이고, 입도의 요문이며, 십이부경전의 으뜸이며, 삼세제불의 근본이다.²⁵⁾

『최상승론』에서 홍인의 선사상 중 자성청정심에 대해서 설법하기를, “대저 수도(修道)의 본체(本體)는 마땅히 신심(身心)이 본래 청정하고, 불생불멸하고, 분별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 자성의 원만청정심이 바로 본사(本師)이고, 이것은十方(十方)의 제불(諸佛)을 염하는 것보다 수승하다.”²⁶⁾고 하였다. 이로부터 홍인은 ‘수심’의 이론적 근거인 자성청정심을 밝혔으며, 이를 문답을 통하여 자신의 마음이 본래청정함을 보다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문: “어떻게 자심이 본래청정함을 알 수 있는가?” 답: “『십지경』에서 설하기를, ‘중생의 몸속에는 금강불성이 있어 마치 태양과 같이 본래 밝고 원만하며, 광대무변하다. 단지 오음의 먹구름에 덮여서 그 모습을 볼 수 없을 뿐으로, 병 속에 등불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비유하자면 세간의 운무가 팔방에서 일어나 태양 빛이 천하를 비추지 못하여 암흑 속에 있는 것과 같다.’ 또한 어두운 까닭은 다만 운무가 빛을 가렸을 뿐으로 본래의 빛은 그대로 있는 것이다. 일체중생의 청정한 마음도 이와 같다. 단지 망념, 번뇌 등에서 반연된 여러 생각의 흑운이 가리고 있

22) 『楞伽師資記』「弘忍傳」 p.1289b. “唐朝蘄州雙峯山幽居寺大師，諱弘忍，承信禪師後，忍傳法。”

23) Morten Schlüter, *Transmission and Enlightenment in Chan Buddhism Seen Through the Platform Sūtra (Liuzu tanjing 六祖壇經)*, Chung-Hwa Buddhist Journal, no. 20, Taipei, Chung-Hwa Institute of Buddhist Studies, 2007, p.383.

24) 中田萬善, 「敦煌文獻の再検討-特に弘忍の修心要論について-」(『印度學佛教學研究』17권2號, 1969, pp. 714-717에서는 敦煌出土의 여러 異本에 대하여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25) 『最上乘論』(T48) p.377c. “知法要，守心第一。此守心者，乃是涅槃之根本，入道之要門，十二部經之宗，三世諸佛之祖。”

26) 『最上乘論』(T48) p.377a. “夫修道之本體，須識當身心本來清淨，不生不滅，無有分別，自性圓滿清淨之心，此是本師，乃勝念十方諸佛”

을 뿐이다. 다만 능히 수심에 머문다면 망념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열반법이 자연히 현현할 것이다. 그러므로 자심이 본래 청정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²⁷⁾

이렇게 ‘수심’이 입도의 요문, 경전의 핵심, 제불의 근본이 되는 이유를 설명 하고서 『최상승론』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위의 네 가지 종류의 문답을 만약 널리 분별하여 설하자면 어찌 끝이 있겠는가. 다만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바라는 것은 스스로 본심이 바로 부처임을 아는 것이다. 그런 까닭으로 너희들에게 권하는 것이다. 천경만론이 수본진심을 넘지 못하고, 수본진심은 그 핵심이다.²⁸⁾

이로써 홍인의 선(禪)의 특징을 ‘수본진심(守本眞心)’의 명칭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어서 ‘수본진심’의 실제 수행인에 있어서는 좌선(坐禪)을 권하고 있는데, 『최상승론』은 좌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만약 초심자로서 좌선을 배우려는 사람은 『관무량수경』에 의지하여, 단정히 앉아 마음을 바르게 하고, 눈을 감고 입을 다물어 마음으로 널리 앞을 보고, 뜻을 멀고 가까움에 따라 일상관(一日想)을 지어서 진심(眞心)을 지키며, 생각 생각에 머물지 말아야 한다. 기식(氣息)을 잘 다스리고, 거친 생각이나 미세한 생각을 내지 말아야 한다. 그러한 것들이 병고를 이루게 한다. 밤에 좌선할 때, 선악의 경계와 창·황·백 등의 삼매, 또는 몸에서 대광명을 발하거나, 여래의 모습을 보거나 하는 등의 여러 변화를 볼 수 있으나 다만 섭심할 뿐 결코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것은 모두 공한 것으로, 망상에서 보게 되는 것일 뿐이다.²⁹⁾

위의 『관무량수경(觀無量壽經)』은 도신선사가 일행삼매(一行三昧)의 근거로서 인용

27) 『最上乘論』(T48) pp.377a-b. “問曰. 何知自心本來清淨. 答曰. 十地經云, 衆生身中有金剛佛性, 猶如日輪體明圓滿廣大無邊. 只爲五陰黑雲之所覆, 如瓶內燈光不能照輝. 譬如世間雲霧八方俱起天下陰闇日豈爛也. 也何故無光. 光元不壞. 只爲雲霧所覆. 一切衆生清淨之心亦復如是. 只爲攀緣妄念煩惱諸見黑雲所覆. 但能凝然守心. 妄念不生. 涅槃法自然顯現. 故知自心本來清淨.”

28) 『最上乘論』(T48) p.378a. “上來四種問答, 若欲廣說何窮. 吾今望得汝自識. 本心是佛. 是故慇懃勸汝. 千經萬論莫過守本眞心, 是要也.”

29) 『最上乘論』(T48) pp.378a-b. “若有初心學坐禪者, 依觀無量壽經, 端坐正念, 閉目合口, 心前平視. 隨意近遠. 作一日想, 守眞心. 念念莫住. 卽善調氣息. 莫使乍麤乍細. 則令人成病苦. 夜坐禪時, 或見一體善惡境界. 或人青黃白等諸三昧, 或見身出大光明, 或見如來身相, 或見種種變化. 但知攝心莫著. 茲皆是空. 妄想而見也.”

했던 경전이며, 홍인도 이 경전을 인용하여 좌선법(坐禪法)을 설하고 있다. 『관무량수경』에서는 원생서방(願生西方)의 16관(觀)을 제시하는 경전인데, 홍인은 다만 ‘일일상관(一日想觀)’만을 취하여 수본진심(守本眞心)에 응용하고 있다. 이상으로 『최상승론』에 나타나는 홍인의 선사상(禪思想)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홍인은 법요로서 ‘수심(守心)’을 제시하고, 그 수심의 이론적 근거로서 자성청정심(自性淸淨心)을 설한다. 또한 자성청정심에 대한 존재론적 근거로서 『십지경(十地經)』의 금강불성을 보여서 그 현현을 위한 실천은 바로 ‘수심’임을 설하였다. 이러한 선사의 ‘수심’은 그대로 ‘수본진심(守本眞心)’으로 표현되어지며, 따라서 홍인선(弘忍禪)의 특징을 ‘수본진심’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수본진심은 그 실천 수행으로 좌선을 설하고 있는데, 홍인은 『관무량수경』의 일일상관(一日想觀)을 취하여 좌선에 응용하였다.

2. 심우도 장소의 메타포: 동산법문

관련 자료에 따르면, 동산법문(東山法門) 명칭은 바로 도신과 홍인으로 이어지는 법계(法系)를 지칭하는 것이다.³⁰⁾ 동산법문은 도신의 문하(門下)에 500여 대중³¹⁾, 홍인 문하에 700여 대중³²⁾을 이루게 되었으며, “천하도속(天下道俗)의 십중팔구(十中八九)”³³⁾가 ‘동산법문’에 귀의하였다고 하는 조금 과장된 평가가 나타나게 된다. 이는 선종사(禪宗史)에서 최초로 대규모의 세력을 형성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 선종(禪宗)의 성립을 ‘동산법문’으로 보는 견해도 나타난다.³⁴⁾ 동산법문을 개창한 도신을 이은 홍인 문하에는 중요한 인물들이 수없이 배출되어 본격적으로 천하에 동산법문의 명성을 떨치게 된다. 『능가사자기』 「홍인전」에서는 이른바 ‘십대제자’를 언급하지만,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들은 바로 북종(北宗)의 신수(神秀), 남종(南宗)의 혜능(慧能)을 들 수 있다. 그것은 바로 후대에 선종의 주류가 남·북 양종으로 분화하기 때문이다.

30) 贊寧, 『宋高僧傳』 권8(T50) p.754b. “入其趣者號東山法門歟”; 『宋高僧傳』 권14(T50) p.796b. “東山法門是一切佛乘。色空兩亡定慧雙照。”; 道原, 『景德傳燈錄』 권5(T51) p.235c. “於此樹下開東山法門宛如宿契”; 『楞伽師資記』 「弘忍傳」. p.1289b. “時號爲東山淨門。”; 『楞伽師資記』 「弘忍傳」. p.1289b. “故口東山法門也。”; 『傳法寶紀』(T85) p.1291c. 唐雙峯山東山寺釋道信, 『傳法寶紀』(T85) p.1291c. “唐雙峯山東山寺釋弘忍”

31) 道宣, 『續高僧傳』 권20, 「道信傳」(T50) p.606b. “于時山中五百餘人。並諸州道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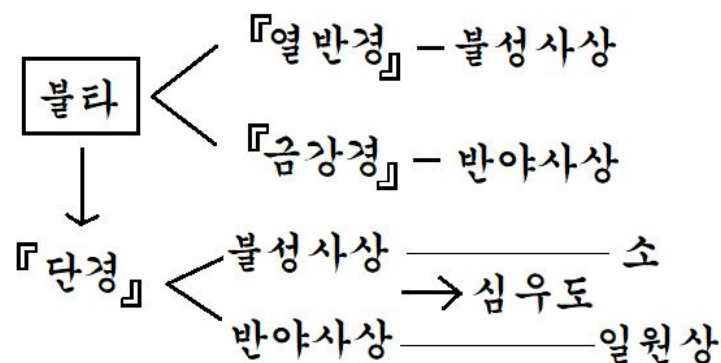
32) 道原, 『景德傳燈錄』 권3, 「弘忍傳」(T51) p.222c. “時會下七百餘僧。”

33) 『楞伽師資記』 「道信傳」, p.386.

34) 楊曾文, 『唐五代禪宗史』 「禪宗成立及其早期發展」,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9, p.69. “東山法門이 中國禪宗의 본격적인 시작으로 보아야 한다. “關於禪宗의 正式成立, “以慧能總弘忍受法南下到曹溪傳法作爲禪宗의 正式成立.”

3. 심우도의 사상적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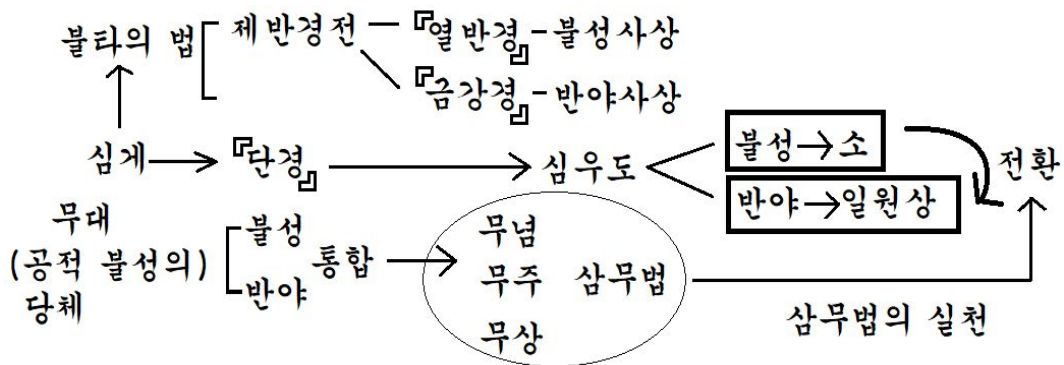
심우도에 대한 사상적 논의에 대한 근거의 적절한 제시가 되면 객관성이 잘 드러날 것이므로 심우도의 사상적 근원을 고찰하여 본다. 심우도의 형성의 사상적 근거는 소를 불성(佛性)으로 일원상을 반야(般若)로 메타포로 사용하여 불성이 반야로 빛을 발하는 순간 수행의 깨달음의 완성을 설법한 문헌이다. 중국선에서 불성사상을 근원으로 반야사상의 통합을 완성한 최초의 문헌은 『단경』으로 일반적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일부 학자들과 혜능의 연구학자들은 심계에서 불성사상과 반야사상이 통합되었으며³⁵⁾, 『단경』에서 이를 더욱 자세하게 설법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당조시대에 설법한 혜능의 『단경』 이후, 반야사상을 중심으로 한 마조의 ‘평상심시도’의 조사선이 활발히 전개되어 진 후, 송대에 이르러 보명의 목우도를 비롯한 심우도들이 완성되었으므로 심우도이 선종적사상의 근거는 『단경』이 된다. 심우도가 중국선을 그림으로 담아낸 완성본이라면 사상적 완성은 『단경』이기 때문이다. 심우도의 사상적 근거란 소(牛)의 불성의 메타포로 사용한 것과 일원상을 반야의 메타포로 사용한 핵심적 사상의 경전을 의미한다. 불타의 설법을 근원으로 하였을 때 불성사상은 『열반경』, 반야사상은 『금강경』이다. 그리고 중국선의 완성으로 보았을 때 『단경』의 불성사상이 소의 형상화에 반야사상이 일원상의 형상화에 영향을 준 사상적 근거가 된다. 선학자들은 『단경』의 불성사상의 근원을 열반경으로 보고 있으며, 『단경』의 반야사상의 근원을 『금강경』으로 보고 있다. 『단경』에서 불성사상을 근원으로 한 반야사상의 실천적 완성을 학자들은 삼무법(무념·무상·무주)로 보고 있다.



〈그림 2〉 심우도의 불성·반야의 사상적 근거

35) 정유진, 『(敦煌本)六祖壇經 研究』, 서울: 경서원, 2007, 176-182쪽 참조.

심우도 전반에서 소가 일원상으로 변하는 과정을 사상적으로 해석하면, 심계에서 무대가 단경에서 불성과 반야의 통합이 된 무념·무상·무주의 삼무법의 반야의 실천적 사상으로 제시된 것이다. 불성의 소가 반야의 일원상으로 무념무상무주의 삼무법의 실천에 의해 소는 사라지고 일원상만이 심우도에서 남는 것이다.



〈그림 3〉 심우도의 불성·반야 통합의 사상적 근거

III. 보명 심우도와 오조 홍인의 선수행 지도

1. 미목(未牧)³⁶⁾

심우도의 일 단계는 미목(未牧)이다. 소를 찾고 있는 것이다. 소를 찾고 있는 선지식이 홍인이며, 찾고 있는 소가 혜능이다. 이것을 표로 나타내면 〈표 1〉과 같다.

〈표 1 홍인의 선법〉 객으로부터 혜능이 『금강경』을 듣게 만듦

1. 未牧: Searching for the Ox.	홍인의 지시	敦煌本『壇經』(T48), p.337a
	『금강경』을 독경하라.	客答曰： 「我於蕪州黃梅縣東馮茂山，禮拜五祖弘忍和尚，現今在彼，門人有千餘衆。我於彼聽見大師勸道俗，但持《金剛經》一卷，即得見性，直了成佛。」

36) 보리달마가 혜가를 기다린 9년간 면벽이 미목에 해당한다. 인도에서 중국으로 와서 최초의 법기를 기다리는 9년간은 진정한 불성의 종자를 찾는 선지식의 모습이였다.(『景德傳燈錄』(T51) p.219b. “寓止于嵩山少林寺，面壁而坐終日默然。人莫之測。謂之壁觀婆羅門。”)

혜능은 불성을 지닌 소인 것이다. 홍인이 『최상승론』에서 『유마경』을 인용하여 불성의 정의를 내리고 있다.

문기를, 어떻게 하면 자심 본성의 불생불멸을 알 수 있습니까? 답하기를, 『유마경』에서 말하기를, 생이 없으면 멸이 없는 것이며, 이것이 진여불성이며, 자성청정인 것으로, 청정이 심(心)의 근본인 것이다.”³⁷⁾

홍인은 소를 잡기위한 10단계의 첫 번째로써, 이 청정한 불성을 깨치는 방법으로 『단경』에서 『금강경』의 독경을 대중들에게 지시를 한 것이다. 『금강경』은 불타의 교설이 들어있는 경전으로 『금강경』에 나와 있기를, “만약 이 경전이 있는 곳에는 곧 부처님과 존중할 제자가 계심이 되느니라.”³⁸⁾라고 하여, 『금강경』을 들은 이는 불성을 보는 것과 같음을 설법하고 있다. 육조 혜능이 『금강경해의』에서 해설하기를,

“자기 마음으로 이 경을 외우고, 자기 마음으로 이 경의 뜻을 이해하며, 다시 능히 집착 없고, 모양 없음[無着無相]의 이치를 체득하여, 그대로 있는 곳에서 항상 부처님의 행을 닦아서, 생각 생각이 끊겼다, 일어났다 하지 않으면 자기 마음이 곧 부처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경이 있는 곳은 곧 부처님이 계신다고 하시니라.”³⁹⁾

불타가 500여 년 전에 이미 혜능과 같은 선근을 심은 법기가 사구계를 지어서 『단경』의 업적⁴⁰⁾을 이룰 수 있음을 『금강경』에서 아래와 같이 설법하고 있다.

“또 수보리아, 어디서나 이 경을 말하되 사구계만 설명하더라도 온 세계의 하늘 무리나 세상 사람이나 아수라들이 모두가 공경하기를 부처님의 탑과 같이 할 것이 거늘, 하물며 어떤 사람이 끝까지 다 지니어 읽거나 외울 때이겠는가. 수보리아, 이 사람은 가장 높고 제일이고 희유한 법을 성취하게 되리니.”⁴¹⁾

37) 『最上乘論』第1卷(T48) p.377b. “問曰, 何知自心本來不生不滅. 答曰, 維摩經云, 如無有生如無有滅. 如者眞如佛性自性清淨, 清淨者心之原也.”

38) 『金剛經』(T8) p.750a. “若是經典所在之處, 卽爲有佛, 若尊重弟子.”

39) 『金剛經解義』第2卷(X24) p.524a. “自心誦得此經, 自心得得經義, 自心體得無著無相之理, 所在之處, 常修佛行. 念念心無有間歇, 卽自心是佛. 故言所在之處, 則爲有佛.”

40) Religion East & West, Sutras with Translators' Introductions: *The Platform Sutra of the Sixth Patriarch* (Ukiah: Institute for World Religions, ISSUE 12, January 2014), p.19.

41) 『金剛經』(T8) p.750a. “復次, 須菩提! 隨說是經, 乃至四句偈等, 當知此處, 一切世間天, 人, 阿修羅, 皆應供養, 如佛塔廟, 何況有人盡能受持讀誦. 須菩提! 當知是人成就最上第一希有之法.”

신수는 계송을 제작하여 벽에 붙인 후 방에 돌아온다. “신수가 계송을 다 쓰고 곧 방에 돌아왔으므로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알지 못하였다.”⁴²⁾ 계송을 적기 전 신수가 혼자 방에 앉아서 생각하는 장면이 있다.

신수가 다시 생각하기를 ‘오조가 밝은 날 계송을 보시고 기뻐하시면 법과 내가 인연이 있는 것이지만 만일 잘되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면 나 자신이 미혹한 것으로, 숙업장중하여 법을 얻지 못하는 것이니, 성인의 뜻은 헤아리기 어렵구나.’⁴³⁾

신수는 “법을 얻지 못한다면”을 “숙업장중(宿業障重)”으로 표현하고 있다. 신수는 또한 “성인의 뜻은 헤아리기 어렵구나(聖意難測)”으로 선지식의 뜻을 헤아리려고 하고 있다. 혜능은 선지식의 뜻을 헤아리지 않는다. 신수는 “헤아리기 어렵다.”라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단경』에서 혜능은 “숙업유연(宿業有緣)”으로 “전생의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았다.”로 표현하고 있다. 혜능이 이러한 것을 느낀 것은 불타의 교설은 불성을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혜능은 이 『금강경』을 듣자마자 중국인의 언어문자인 한자어로서 홍인이 『최상승론』에서 말한 심(心)의 청정의 본질인 불성을 바로 깨친 것이며, 심계를 청정의 작용인 반야로써 만든 것이다. 『금강경』에서 혜능과 같은 법기를 표현하기를 아래와 같이 오백년 뒤인 지금을 위해서 불타가 설해 놓았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죄었다. “세존이시여, 혹 어떤 중생이 이러한 말씀을 듣고서 진실이란 믿음을 내겠습니까?” …중략… 이런 사람은 한 부처님이나 두 부처님이나 셋넷다섯 부처님께만 선근을 심은 것이 아니라 이미 한량없는 백천만 부처님께 온갖 선근을 심었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는 잠간 동안이라도 깨끗한 믿음을 내는 것이니라.”⁴⁴⁾

홍인은 이미 혜능의 이러한 백·천·만 부처님께 온갖 선근을 심었다는 것을 간파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혜능은 홍인의 예상대로 『금강경』의 불타의 선법에 따라 정확하게 선지식을 찾아서 떠났던 것이다. 불타가 심법으로 이러한 법계의 작용을 『금강경』에 교설해 놓았으며, 홍인은 『금강경』의 불타의 불성을 『최상승론』에서 진여불성

42) 敦煌本『壇經』(T48) p.337b. “神秀上座題此偈畢，卻歸房臥，並無入見。”

43) 敦煌本『壇經』(T48) p.337b. “五祖見偈言不堪，自是我迷，宿業障重，不合得法，聖意難測。”

44) 『金剛經』(T8) p.749a. 須菩提白佛言：“世尊！頗有衆生，得聞如是言說章句，生實信不”…중략…當知是人 不於一佛二佛三四五佛而種善根，已於無量千萬佛所 種諸善根，聞是章句，乃至一念生淨信者。”

의 본질이 청정으로, 선근을 심어서 법기가 될 소를 알고 있었던 것이다. 홍인은 혜능의 스승이므로, 이미 사바세계이전의 숙업인연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다.

혜능이 그 말을 들은 후에 숙업의 인연으로 알고 어머니께 인사하고 떠났으며, 황매현에 있는 빙묘산으로 갔다. 그리고 오조 홍인 화상을 친견하였다.⁴⁵⁾

여기서 전생의 인연이란 정확히 말해서 법과의 인연인 것이다. 그렇다면 혜능의 대화에서 법과의 인연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홍인이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황매산에 온 것을 질문하였을 시⁴⁶⁾ 혜능의 답변은 “다른 것은 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부처가 되는 법만을 구할 뿐입니다.”⁴⁷⁾였다. 혜능이 말한 불법은 교법이 아닌 심법을 뜻하는 것이며, 이것은 곧 법계를 뜻하는 것이다. 혜능은 부처가 되는 법, 불법을 구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하고 있으며, 여기서 숙업유연이란 불법과의 인연, 심법, 법계를 뜻한다. 혜능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금강경』의 내용대로 최상의 희유지법인 심법을 성취하게 된다.⁴⁸⁾

2. 초조(初調)⁴⁹⁾

심우도의 이 단계는 초조(初調)로써 처음으로 소를 잡는 것으로, 소의 발자취를 보는 것이다. 홍인은 혜능의 답에 대해서 천한 영남 오랑캐는 법을 배울 자격이 없다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대사께서 혜능을 꾸짖어 말씀하시길, 너는 영남의 오랑캐인데 어떻게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⁵⁰⁾ 이러한 홍인에게 혜능은 『단경』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비록 사람에게는 남북이 있지만, 불성에는 남북이 없습니다. 비록 갈료(오랑캐)의 이 몸과 화상의 몸은 다르지만, 불성에 어찌 차별이 있겠습니까?”⁵¹⁾

45) 敦煌本『壇經』(T48) p.337a. “惠能聞說，宿業有緣，便即辭親，往黃梅憑墓山，禮拜五祖弘忍和尚。”

46) 敦煌本『壇經』(T48) p.337a. “弘忍和尚問惠能曰，汝何方人？來此山禮拜吾，汝今向吾邊，復求何物？”

47) 敦煌本『壇經』(T48) p.337a. “不求餘物，唯求佛法作。”

48) 『金剛經』(T8) p.750a. “復次，須菩提！隨說是經，乃至四句偈等，當知此處，一切世間天、人、阿修羅，皆應供養，如佛塔廟，何況有人盡能受持讀誦。須菩提！當知是人成就最上第一希有之法。”

49) 보리달마가 소를 잡는 것으로 혜가에게 대신심을 요구하는 것이다.(『景德傳燈錄』(T51) p.219b. “光聞師誨勸，潛取利刀自斷左臂，置于師前，師知是法器，乃曰，諸佛最初求道爲法忘形，汝今斷臂吾前，求亦可在，師遂因與易名曰慧可.”) 소의 발자취를 보는 것으로 남악회양이 마조도일이 큰 법기가 될 것임을 알고, 좌선에 치중함을 보고 있는 것이다(『景德傳燈錄』卷5「南嶽懷讓章」磨磚作鏡機緣). 선지식은 제자의 모든 수행과정을 다 주시하고 있다.

50) 敦煌本『壇經』(T48) p.337a. “大師遂責惠能曰，汝是嶺南人，又是獠獠，

51) 敦煌本『壇經』(T48) p.337b. “人即有南北，佛性即無南北，獠獠身與和尚不同，佛性有何差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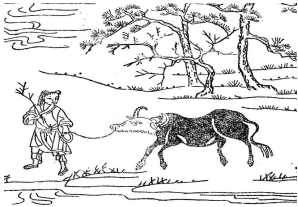
〈표 2 홍인의 선법〉 혜능의 불성사상을 점검

二	2. 初調 : Seeing the Traces.	홍인의 설법	敦煌本『壇經』(T48), p.337a
			
		어떻게 부처가 된단 말인가?	大師遂責惠能曰：「汝是嶺南人，又是獵獠，若爲堪作佛！」

3. 수제(受制)⁵²⁾

심우도의 삼 단계는 수제(受制)로써 규칙을 따르는 것이며, 세 번째, 홍인의 혜능에 대한 지시는 좌우를 둘러본 것이다.

〈표 3 홍인의 선법〉 혜능에게 제약이 있음을 암시

三	3. 受制 : Seeing the Ox.	홍인의 선법	敦煌本『壇經』(T48), p.337a
			
		홍인의 선문답	“대사는 더 말하고 싶었지만, 좌우에 있는 대중들을 보게 된다. 대사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大師欲更共語，見左右在旁邊，大師便不言

“대사는 더 말하고 싶었지만, 좌우에 있는 대중들을 보게 된다.”⁵³⁾ 즉 이렇게 좌우를 둘러본 뜻은 혜능에게 주위를 둘러보는 홍인의 선지식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한 것이다. 정확하게 해석하면, 주위에 대중들이 있는지 본 것과 확인한 것이 아니라, 주위에 대중들을 보는 홍인의 모습을 혜능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홍인이 주위를 본 것은 혜능에게 제약이 있음을 암시한 선문답이다.

52) 수제는 규칙과 관련된 것으로, 남악회양이 중국선종이 정에 치중한 공(空)의 선(禪)으로 법난을 이겨가지 못할 것을 예지, 마조도일의 선수행법에서 정에 치중함을 지적하는 것이다(『景德傳燈錄』卷5「南嶽懷讓章」磨磚作鏡機緣). 이후로 중국 선종의 수행은 동적, 반야의 생활화로 전개되어 진다. 이것은 선농일치와 노동과 선의 일치의 시발점이 된다.

53) 敦煌本『壇經』(T48) p.337b. “大師欲更共語，見左右在傍邊。”

4. 회수(廻首)⁵⁴⁾

심우도의 사 단계는 회수(廻首)로써 소를 돌아보는 것이다. 이 선문답에 대한 답은 홍인이 심계를 완성 할 수 있도록 반야행을 통해서 불성문답의 불성사상과 반야사상을 통합한 심계를 완성할 수 있도록 방앗간으로 보내는 것이다. “대사는 다시 말하지 않았다. 혜능을 방앗간으로 보냈으며 혜능은 대중들 사이에서 방아를 찧는 노동을 하였다.”⁵⁵⁾

〈표 4 홍인의 선법〉 혜능을 방앗간으로 보냄

四	4. 廻首 : Catching the Ox.	홍인의 선문답	敦煌本『壇經』(T48), p.337b.
		방아나 찧도록 하라	대사가 다시 말하지 않았다. 혜능을 방앗간으로 보내어 작무를 하도록 명하였다. “大師更不言，遂發遣惠能，令隨衆作務。”

5. 순복(馴伏)⁵⁶⁾

심우도의 오 단계는 순복(馴伏)으로써 소를 길들이는 것이며, 다섯 번째 홍인의 대중들에 대한 지시는 혜능을 방앗간으로 보낸 후 8개월간 기다리는 것이었다. 8개월이 지난 어느 날 대중들을 운집 시킨 것이다. “오조는 홀연히 어느 날 대중들을 운집시킨다.”⁵⁷⁾

54) 회수는 선지식이 소를 날카롭게 돌아보며 일구를 던지는 것이다. 목주선사가 운문선사의 물음에 문을 닫아버려 운문문언의 발이 부러지는 것이다. (『雲門匡眞禪師廣錄』 第3卷 (T47) p.0573b05. “師初參睦州蹤禪師。州纔見師來。便閉却門。師乃扣門。州云誰。師云某甲。州云。作什麼。師云。已事未明。乞師指示。州開門一見便閉却師。如是連三日去扣門。至第三日州始開門。師乃拶入。州便擒住云。道道。師擬議。州托開云。秦時[車*度]轆轤。師從此悟入。”) 마조가 백장의 답에 코를 비틀어 의심삼매에 들게하는 것이다. (『佛果圓悟禪師碧巖錄』【五三】 第6卷(T48) p.0187c15. “馬大師與百丈行次。見野鴨子飛過兩箇落草漢草裏。驀願作什麼大師云。是什麼(和尚合知。這老漢鼻孔也不知)丈云。野鴨子(鼻孔已在別人手裏。只管供款。第二杓惡水更毒)大師云。什麼處去也。”) 석두가 방거사의 입을 막고, 마조가 방거사의 귀를 막아버려서 의심삼매에 들게하는 것이다. (『龐居士語錄』 第1卷 (X69) p.0131a10. “乃問。不與萬法爲侶者是甚麼人。頭以手掩其口。”; 『龐居士語錄』 第1卷 (X69) p.0131a19. “問曰。不與萬法爲侶者是甚麼人。祖曰。待汝一口吸盡西江水卽向汝道。士於言下頓領玄旨。”)

55) 敦煌本『壇經』(T48) p.337b. “大師更不言，遂發遣惠能，令隨衆作務。”

56) 운문선사(『雲門匡眞禪師廣錄』 第3卷 (T47) p.0573b05. “秦時[車*度]轆轤。師從此悟入.”), 백장(第6卷 (T48) p.0187c15.) 방거사(『龐居士語錄』 第1卷 (X69) p.0131a10. “士於言下頓領玄旨.”)가 선지식의 가르침에 따라서 의심삼매에서 깨침에 이르는 것이다.

〈표 5 홍인의 선법〉 방앗간에서 8개월간 울력

五	5. 馴伏 : Herding the Ox.	홍인의 지시	敦煌本『壇經』(T48), p.337a
		방앗간에서 반야행.	8개월간 방앗간에서 울력을 함 惠能於碓坊踏碓八个餘月

6. 무애(無碍)⁵⁸⁾

심우도의 육 단계는 무애(無碍)로, 장애가 없어지는 것이다.

〈표 6 홍인의 선법〉 계송을 짓게.

六	6. 無碍: Coming Home on the Ox's...	홍인의 지시	敦煌本『壇經』(T48), p.337b
		계송을 짓도록 하라.	各作一偈呈吾.

홍인의 대중들에 대한 지시는 생사 윤회의 바다를 벗어나라는 것이었다. 운집 후, 대중들을 나무라는 가르침을 전한다. ‘내가 오늘 너희들을 위해서 설법을 하여야겠다.’ ‘너희들 대중들은 복전만을 구할 뿐, 생사의 고뇌의 바다에서 벗어날 생각을 하지 않는구나. 복전만을 구하는 것으로 어떻게 이 생사 윤회의 바다를 벗어날 수 있다는 말인가?’⁵⁹⁾ 홍인은 혜능이 불성을 깨친 것을 알았으므로, 대중들을 운집시켜서 심계의

57) 敦煌本『壇經』(T48) p.337b. “五祖忽於一日喚門人盡來, 門人集記.”

58) 임제가 황벽선사에게 육십봉을 맞고(임제가 황벽선사를 세 번을 참문하였으나, 세 번다 주장자로 이 십봉씩을 맞았다; 『祖庭事苑』第2卷 (X64) p.0331b20. 首參黃蘗. 堂中第一座諭令往問佛法的大意. 蘗打之. 凡三造丈室. 被六十棒), 대우선사의 일구에 깨침을 얻는 것이다(임제가 대우에 이르니, 대우가 묻는다. “어디서 왔고?” “황벽선사에게서 왔습니다.” “황벽이 뭐라 하던고?” “세 번 불법의 대의를 물었으나, 세 번 다 이십 봉을 맞기만 했습니다. 저에게 무슨 허물이 있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황벽이 어린아이 보살피듯 간절하게 고해로부터 건지려고, 철두철미하게 배려를 하였거늘, 이놈아! 여기까지 와서 허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묻느냐?” 임제는 이 말에 바로 깨닫는다; 『祖庭事苑』第2卷 (X64) p.0331c02. “大愚見師來. 問其所以. 卽舉前話. 因而問曰. 義玄凡三度被打. 未審有甚麼過. 愚曰. 黃蘗與麼老婆. 爲汝得徹困. 更問有過無過. 師於言下知歸.”).

작성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혜능이 불성을 구하기만을 바란다고 답을 하였을 때, 홍인이 “오랑캐의 몸으로 어떻게 불성을 구할 수 있겠는가?”라고 나무랐던 것은 혜능의 불성사상을 확인한 것이지, 실제로 나무라는 것은 아니었다. 대중들에게 “불성을 구하지 않고 복전만을 구하고 있다.”⁶⁰⁾고 한 것도 역시 실제로 대중들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며, 심계의 작성을 지시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대중들에게 꾸짖는 말로써 “불법의 대의를 깨치는 것이 중하므로 각자의 마음을 보아서 계를 적어서 완성하라.”⁶¹⁾는 심계 작성의 명을 내린 것은 혜능에게 심계를 완성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혜능이 불성문답을 한 후 그것을 심계로 적어서 올리라는 뜻이었다. 홍인은 혜능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 대중들에게 지시하기를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서, 각자의 반야⁶²⁾의 지혜로써 계를 지어서 올리도록 하라.”⁶³⁾하였다. 먼저 돈황본『단경』에 신수가 고심 끝에 지어 벽에 게(偈)를 붙인다.⁶⁴⁾ 신수의 계송은 신수의 『관심론(觀心論)』에서 주장하는 관심간정(觀心看淨)의 선사상을 시로 읊은 것이다. 그러나 홍인은 이 신수의 계를 보고 아직 입도(入道)하지 못했다 하여 인정하지 않았다. 오조가 말하였다. “네가 지은 이 계송은 여전히 네가 아직 진정한 깨달음에 도달하지 못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너는 단지 문 앞에 왔을 뿐이며, 너는 아직 문안에 들어가지는 못했다.”⁶⁵⁾ 오조는 신수에게 다시 생각을 더 한 뒤에 지어서 오라고 명한다. “가서 깊이 생각하여 하루 이틀 뒤에 다시 계송을 지어서 나에게 바쳐라. 만약 네가 문안에 들어가서 너의 진정한 본성을 볼 수 있다면, 나는 너에게 가사와 법을 전할 것이다. 신수상좌는 떠났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그는 여전히 계송을 지을 수 없었다.”⁶⁶⁾ 이것은 혜능이 신수의 계송을 듣고 나서 심계를 지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59) 敦煌本『壇經』(T48) p.337b. “五祖曰, 吾向與說 世人生死事大, 汝等門人終日供養, 只求福田, 不求出離生死苦海.”

60) 敦煌本『壇經』(T48) p.337b. “汝等自性迷, 福門何可救汝?”

61) 敦煌本『壇經』(T48) p.337b. “汝等且歸房自看, 有知惠者, 自取本性般若知之, 各作一偈呈吾.”

62) Keown, Damien, A Dictionary of Buddhis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p.218. “Prajñā is often translated as “wisdom”, but is closer in meaning to “insight”, “discriminating knowledge” or “intuitive apprehension”. jñā can be translated as “consciousness”, “knowledge”, or “understanding.””

63) 敦煌本『壇經』(T48) p.337a. “汝忽且歸房, 自看有知惠者, 自取本性般若知之, 各作一偈呈吾.”

64) 敦煌本『壇經』(T48) p.337b. “身是菩提樹, 心如明鏡臺, 時時勤拂拭, 莫使有塵埃.”

65) 敦煌本『壇經』(T48) p.337b. “五祖曰, 汝作此偈, 見即來到 只到門前, 尚未得入, 凡夫於此偈修行, 即不墮落, 作此見解, 若覺無上菩提, 即未可得, 須入得門見自本性, 汝旦去, 一兩日來思惟.”; Yampolsky, Philip B, 『The Platform Sutra of the Sixth Patriarch』,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7, p.131.

66) 敦煌本『壇經』(T48) p.337b. “更作一偈, 來呈吾. 若入得門見自本性, 當付汝衣法. 秀上座去數日作不得.”; Yampolsky, Philip B, 『The Platform Sutra of the Sixth Patriarch』,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7, p.131.

7. 임운(任運)⁶⁷⁾

심우도의 칠 단계는 임운(任運)으로써, 수행이 자연스러워 지는 것이다. 일곱 번째, “오조 명하시길, 문인들 모두 신수의 계송을 외워라.”⁶⁸⁾ 이러한 홍인의 대중들에 대한 지시는, 혜능이 신수의 계송을 듣고서 불법의 문안에 들어가지 못한 부분을 고쳐서 들어가도록 만들라는 의미를 지닌 것이었다.

〈표 7 홍인의 선법〉 계송을 독송하라.

七	7. 任運: The Ox Forgotten, Leaving...	홍인의 지시	敦煌本『壇經』(T48), p.337c
		계송을 독송하라.	弘忍曰： 「汝等盡誦此偈者，方得見性， 依此修行，即不墮落。」

즉, 동자가 신수의 깨닫지 못한 계송을 독송하여 혜능이 듣게 된다. “한 동자가 있었으니, 방앗간 옆을 지나면서, 신수의 계송을 외웠다.”⁶⁹⁾ 이때, 혜능은 한 동자가 외우는 계송 소리를 듣게 된다. “혜능은 계송 외우는 소리를 한 번 듣고 아직 견성하지 못한 것임을 알아차리고 곧 바로 계송의 큰 뜻을 파악했다.”⁷⁰⁾ 혜능은 동자에게 이 계송을 어디서 외웠으며, 어떻게 된 것인지 물었다.

이에 동자가 말하기를, “오조 홍인께서 계를 제작하여 바치라고 하였으며, 계를 완성한 이에게 6대조의 법과 가사를 물려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수가 계송을 지어서 벽간에 붙였는데, 오조 홍인께서 신수의 계송을 대중들에게 외울 것을 명했습니다. 이 계송을 외우는 자는 견성을 할 것이며, 이 계송에 의지하여 수행하는 이는 삼악도를 면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⁷¹⁾

67) 임제가 수처작주 입처개진(『鎮州臨濟慧照禪師語錄』 1卷 (T47) p.498a. “道流，佛法無用功處，祇是平常無事。屙屎送尿著衣喫飯，困來即臥。愚人笑我，智乃知焉。古人云，向外作工夫，總是癡頑漢。爾且隨處作主，立處皆真。境來回換不得。”)을 주장하며, 법을 자유자재로 펼치는 것이다.

68) 敦煌本『壇經』(T48) p.337c. “五祖，令諸門人盡誦。”

69) 敦煌本『壇經』(T48) p.338a. “有一童子，於碓坊邊過，唱誦此偈。”

70) 敦煌本『壇經』(T48) p.337b. “惠能一聞知未見性，即識大意。”

71) 敦煌本『壇經』(T48) p.338a. “童子答能曰，作不知大師言，生死是大，欲傳於法。令門人等各作一偈來呈

오조 홍인이 대중들에게 신수의 계송을 외우게 한 것은 혜능이 신수의 계송을 듣고서 중국선종의 인도선의 완성되지 않은 한자문화권의 한계인 선의 완성을 하라는 뜻이 숨어 있었다.

혜능은 계송에 예배를 한 후, 혜능은 글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어떤 글을 아는 사람에게 부탁하여 계송을 읽어달라고 청한다. 혜능은 한번 듣고서 즉시, 대의를 알게 되었다. 혜능도 또한 본인의 심계(心偈)를 지었다. 글을 쓸 줄 아는 이에게 청하여 서쪽간의 벽에 써서 자신의 본심을 드러내 보였다. “본래의 마음을 모르면 법을 배워도 이익이 없다. 마음을 알고 본성을 보게 되면 곧 바로 불법의 대의를 깨닫게 된다.”⁷²⁾

여기서 혜능이 신수의 계송을 듣고 오조의 심계에 대한 지시의 뜻을 파악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 신수가 지은 계송은 그 당시의 경전에 의한 중국의 교리해석의 한계로써 극복하지 못하였던, 불립문자와 심법에 해당하는 불법의 문안에 바로 들어가기 직전의 부분이었다. 즉, 문자로써 완전히 심법(心法)에 들어가지 못한 부분이었다. 이것을 혜능은 간파하여, 신수가 문에 들어가지 못한 부분만을 정확히 찍어서 심계를 완성하여 문안으로 들어가게 만든 것이었다.⁷³⁾ 하지만 홍인은 대중들에게 바로 이것을 말하지 않았다. “오조가 문득 혜능의 계송을 보고 곧 바로 큰 뜻을 알았다. 대중들이 알까 염려되어 ‘이 계송 또한 아직 깨닫지 못한 것이라’ 했다.”⁷⁴⁾ 이 원인은 대중들이 알고서, 이를 부정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 원인은 홍인이 대중들에게 “혜능이 법을 가지고 갔다.”⁷⁵⁾고 전한 후 나타난다. “백 여 명의 사람들이 있었으니, 혜능에게서 법을 빼앗기 위해서 쫓아왔다. 거의 반을 쫓아 왔다.”⁷⁶⁾ 대중들의 뜻은 법을 혜능에게 전하였기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법을 전하였기에, 법을 물리자는 것이었다.

看悟大意即付衣法，稟爲六代。褐有一上座名神秀，忽於南廊下書無相偈一首。五祖，令諸門人盡誦。悟此偈者即見自姓，依此修行即得出離。”

72) 敦煌本『壇經』(T48) p.338a. “能即禮拜此偈，爲不識字，請一人讀。惠問已即識大意，惠能亦作一偈。又請得一解書人，於西間壁上提着，呈自本心，不識本心，學法無益，識心見姓，即吾大意。”

73) 신수의 계송과 혜능의 심계는 한자의 몇 글자 차이로 불법의 문안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이 사실을 알 수 있다.

74) 敦煌本『壇經』(T48) p.338a. “五祖忽見惠能但，即善知識大意。恐衆人知，五祖乃謂衆人曰，此亦未得了。”

75) 敦煌本『壇經』(T48) p.337b. “能得衣法，三更發去。”

76) 敦煌本『壇經』(T48) p.338a. “有數百人，來欲擬頭惠能奪於法，來至半路。”

8. 상망(相忘)⁷⁷⁾

심우도의 팔 단계는 상망(相忘)으로써, 서로를 봐도 무심하다.

〈표 8 홍인의 선법〉 법계전수.

八	8. 相忘: The Ox and the Man...	홍인 5대조	敦煌本『壇經』(T48), p.338a
		혜능 6대조로 법계전수	其夜受法,人盡不知,便傳頓教法及衣,以爲六代祖.

여덟 번째, 오조 홍인이 혜능에게 법을 전수한 장면에서 기록되어 있는 법은 돈법(頓法)이다.⁷⁸⁾ 이것은 오조 홍인의 심게 작성 지시의 의도대로 혜능이 한자문화권의 언어로써 불성사상과 반야사상을 통합하여 정혜일치의 법문을 설할 수 있는 선을 완성하였기에 가능하였던 것이었다. 오조 홍인은 혜능에게 법을 전수한 후 사람들의 해함을 피하기 위하여 남쪽으로 떠나보냈다.⁷⁹⁾

77) 제자가 선지식의 선문답에 정확한 답을 하는 것이다. 운문선사의 운문삼전어에 파릉선사가 운문삼전어의 답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다(여러 제자들 중에서 파릉(巴陵) 스님이, 세 가지 법문에 대한 답을 적어서 올리었다. 운문 선사께서 이 답 처(答處)를 듣고 매우 기뻐하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가면, 너희들은 기일에 제사상에 갖가지 음식을 차리지 말고 항상 이 세 마디 법문을 일러주길 바란다.” 이 세 마디 법문은 불조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다. 어떠한 것이 부처님법의 진리의 도(道)인가? 부처님법의 진리의 도(道)는 ‘눈 밝은 사람이 우물에 빠졌음’이요, 어떠한 것이 취모검(吹毛劍)인가? 취모검은 ‘산호(珊瑚)나무 가지가지에 달이 주렁주렁 매달렸음’이요, 어떠한 것이 제바종(提婆宗)인가? 제바종은 ‘은쟁반 위에 흰 눈이 소복히 쌓인 것이다.’ 『祖庭事苑』 第2卷 (X64) p.0335c10. “岳州巴陵新開顯鑒禪師。嗣雲門。時謂鑒多口。凡遇雲門諱日。皆不贊供食。人問其故。曰。吾嘗對話有三語。足以報先師恩德。三語者。僧問。如何是道。云。明眼人落井。祖意教意。是同是別。云。雞寒上樹。鴨寒下水。如何是提婆宗。云。銀碗裏盛雪。叢林有語云巴陵平生三轉語。”). 정확한 선문답은 소가 바로 일원상인 반야로 바뀌는 것이다.

78) 敦煌本『壇經』(T48) p.338a. “五祖夜知三更。喚惠能堂內。說金剛經。惠能一聞。言下便悟。其夜受法。人盡不知。便傳頓法及衣。汝爲六代祖。衣將爲信。稟代代相傳法。以心傳心。當令自悟。”

79) 敦煌本『壇經』(T48) p.337b. “良久能得衣法。三更發去。五祖自送能。於九江驛登時。便悟祖處分。汝去努力將法向南。三年勿弘此法。難去在後弘化善誘迷人。若得心開。汝悟無別。辭違已了便發向南。”

9. 독조(獨照)⁸⁰⁾

심우도의 구 단계는 독조(獨照)로써, 홀로 비추는 것이다. 아홉 번째, 홍인이 대중들에게 읽게 한 신수⁸¹⁾의 계송으로부터 혜능의 심계를 듣고 혜순이 감명을 받은 것이다. 혜능은 가사와 발우를 들고서 남쪽으로 향하였다.⁸²⁾ 혜능이 온 후 8번째로 대중들에게 베푼 가르침은 혜능이 법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법은 혜능이 가지고 갔다.” 대중들은 혜능의 뒤를 쫓아가 의발을 뺏으려고 하였다. 3품 장군 출신의 혜순(惠順)은 기골 장대하여 빨랐으므로 앞장서 혜능을 뒤쫓게 된다.⁸³⁾

〈표 9 홍인의 선법〉 심계에 조복(혜순).

九	9. 獨照: Returning to the Origin, ...	홍인의 선법	敦煌本『壇經』(T48), p.338a
		심계에 조복(혜순)	便傳法惠順, 惠順得聞, 言下心開, 能使惠順即却向北化人.

여기에서 혜순이 “가사와 발우를 받지 않고 법을 구하기 위해서 왔다.”⁸⁴⁾고 말한 것에 주목을 하여야 한다. 이것은 혜순이 신수의 계송을 읊었을 때 느끼지 못한 심(心)의 깨달음을 혜능의 심계에서 어느 정도 느꼈기 때문에 혜능이 법을 전수 받은 사실을 알게 되자 쫓아온 것이다. 신수의 계송은 불이법문이 아니었지만, 혜능의 심계는 불이법문이었기에, 이 불이법문을 들은 즉시 혜순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혜능은 대유령 정상에서 곧 혜순에게 법을 전하였으며, 혜순은 언하에 마음이 열리게 되

80) 마조의 달 아래 이르라는 선문답에 남전이 자유로이 달빛을 받으며 반야의 자취를 드러내 보이며, 걸 어가는 것이다(어느 날 서당백장남전이 마조를 모시고 달맞이를 간다. 마조가 물었다. “지금 때에 무엇을 하면 좋겠는가?” 서당이. “공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백장이 “수행하기에 좋겠습니다”. 남전만 소매를 뿌리치면서 그냥 가버렸다. 마조가. “경(經)은 서당에게, 선(禪)은 백장에게로, 오직 남전만이 경계에서 벗어났구나.”; 『馬祖道一禪師廣錄』(X69) p.3c. “西堂百丈南泉, 侍祖翫月次. 祖曰, 正恁麼時如何. 西堂云, 正好供養. 百丈云, 正好脩行. 南泉拂袖便去. 祖云, 經入藏. 禪歸海. 唯有普願, 獨超物外.”). 남전이 감지행자의 독경청에 독을 깨트려버리는 것이다.(『先覺宗乘』第2卷「唐甘贄行者(嗣法南泉順)」(X87) p.186a. “南泉便打破鍋子.”)

81) McRae, *Seeing Through Zen*, California,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3, p.13, pp.17-18.

82) 敦煌本『壇經』(T48) p.338a. “能得衣法, …중략…, 辭違已了, 便發向南.”

83) 敦煌本『壇經』(T48) p.338a. “唯有一僧, 姓陳, 名惠順. 先是三品將軍, 性行麤惡, 直至嶺上, 來趁犯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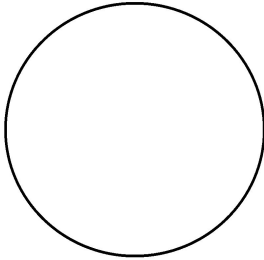
84) 敦煌本『壇經』(T48) p.338a. “惠能即還法衣, 又不肯取. 我故遠來, 求法不要其衣.”

었다.”⁸⁵⁾ 돈황본『단경』의 기록에 “혜능이 혜순에게 곧 법을 전하게 되었으며”로써, 便傳法을 사용하고 있다. 즉, 혜능⁸⁶⁾이 심계를 제작하여 사람들에게 보인 것이며, 을 첫 번째 법을 전한 것이며, 혜순은 신수의 계송을 외우다가 혜능의 심계를 접하게 되었을 때, 혜능으로부터 법을 한번 전해들은 것이며, 대유령에서 불이법문을 직접 듣게 된 것이다. 즉 오조 홍인이 대중들에게 신수의 계송을 읊게 한 후 혜능에게 심계를 완성하게 한 것은 신수의 가르침과 사상에 익숙하였던 대중들이 신수의 계송을 외우고 다니다가, 문득 혜능의 심계를 들음으로써, 신수가 들어가지 못한 불이법문의 투과를 혜능의 심계로써 들음으로써, 인도적 중국선의 한계가 혜능에 의해서 극복될 수 있음을 느끼게 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10. 쌍민(雙泯)⁸⁷⁾

심우도의 마지막 단계는 쌍민(雙泯)으로 『단경(壇經)』이다. 열 번째 ‘쌍민’은 목동과 소, 둘 다 자취를 감춘 단계이다. “사람도 소도 보이지 않으며, 아무런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밝은 달빛 차가우며 만상은 텅 비어 있다. 혹여 누군가 이 뜻 묻는다면, 야방 화초가 스스로 무성하다 하리라.”⁸⁸⁾ 소도 목동도 사라진 경계를 일원상으로 표현해 놓았다.

〈표 10 홍인의 선법〉 『단경』 완성.

十단계	10. 雙泯: Entering the City..	홍인의 선법	敦煌本『壇經』(T48), p.340b
		『南宗頓教最上大乘 ⁸⁹⁾ 摩訶般若波羅蜜經六祖惠能大師於韶州大梵寺施法壇經一卷』	(심우도 10개의 송의 쌍민4구:叢猶如大海, 納於衆流, 小水大水, 合爲一體, 卽是見性.

85) 敦煌本『壇經』(T48) p.338a. “能於嶺上便傳法惠順, 惠順得聞言下心開.”

86) 『景德傳燈錄』第5卷 (T51) p.235b. “第三十三祖慧能大師者, 俗姓盧氏.”

87) 선종에서 조사들의 임무가 선종의 완성이라는 큰 물줄기를 향하여 나가면서 큰 획을 긋는 사건들이 다. 중국선의 완성에서 혜능이 『단경』을 완성하는 것이다. 조사선의 출발점으로 마조가 “평상심시도(『景德傳燈錄』 卷28 (T51) p.440a. “道不用修但莫污染, 何爲污染, 但有生死心, 造作趣向皆是污染, 若欲直會其道平常心是道.”)를 주창하는 것이다. 「청구」의 완성으로 백장이 “일일부작 일일불식(『四家語錄』 卷二 「洪州百丈山大智禪師語錄」(X119) p.820c. “師, 凡作務執勞, 必先於衆, 衆皆不忍, 蚤收作具, 而請息之. 師云, 吾無德, 爭合勞於人. 師既遍求作具不獲, 而亦忘食, 故有一日不作一日不食之言.”)을 주창한 것이다.

88) 『牧牛圖』卷1, (X113), p.923a, “人牛不見杳無蹤明月光寒萬象空 若問其中端的意 野花芳草自叢叢”

IV. 심우도의 결(結)

심우도의 사상적 근거가 된 불성사상의 출발점은 홍인과 혜능의 불성문답에 있다. 혜능이 불성문답에서 답을 한 부분을 『최상승론』에서 찾아보면 아래 <표 11>과 같이 8번째 항목과 9번째 항목이 동일한 것으로 홍인은 혜능의 답변을 알고서도 모른 체한 것이다. 하지만 혜능에게 남쪽 오랑캐는 부처가 될 수 없다고 말한 것은 대중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혜능이 불성에 관한 답변을 한 것을, 본 논문은 혜능이 『금강경』들은 즉시 성취제일회유지법을 성취하였기 때문에 홍인을 찾아온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홀연히 한 객이 『금강경』을 독송하는 것을 보았다. 혜능은 한번 듣고 마음을 깨친 것이다.”⁹⁰⁾ 오조가 『최상승론』에서 불성사상에 관하여 설법하는 구조의 핵심이 “생멸과 관계없으며, 생과 연하여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⁹¹⁾ 혜능 불성문답에서 답을 한 부분을 『최상승론』에서 찾아볼 수 있다.

<표 11> 홍인의 『최상승론』에서 불성에 관한 설법의 구조

n.	『최상승론』의 설법	『최상승론』1권(T48, p.377b.)기록
1	진여불성	如者眞如佛性
2	자성청정심	自性淸淨
3	청정	淸淨者
	심계에서 혜능이 불성의 정의를 내린 부분	
4	심의 근원	心之原也
5	생을 연하지 않음	眞如本有不從緣生
6	일체중생이 이와 같음	又云, 一切衆生皆如也.
7	중생이 성인이 됨	衆賢聖亦如也.
8	나와 동등함	一切衆生者, 卽我等是也.
	혜능이 홍인의 최상승론의 설법에서 말한 정확한 답을 제심함	
9	불성은 동등함	衆賢聖者, 卽諸佛是也.
	최상승론에서 이 부분이 불성무남북과 동일한 뜻임	
10	중생의 신중에 불성의 보편성이 들어있다.	名相雖別身中眞如法性並同.
11	생멸이 없음, 자성의 본질이 이리함	不生不滅故言皆如也.
12	따라서 자심이 불생불멸함을 알 수 있음	故知自心本來不生不滅.

89) Eedward craig, *The shorter routledge encyclopedia of philosophy*, New York, Taylor & Francis, 2005, pp.111-112. 『南宗頓教最上大乘摩訶般若波羅蜜經六祖惠能大師於韶州大梵寺說法壇經一卷』

90) 敦煌本『壇經』(T48) p.337a. “忽見一客讀『金剛經』. 惠能一聞, 心明便悟.”

91) 『最上乘論』 第1卷(T48) p.377b. “問曰, 何知自心本來不生不滅... 중략... 如無有生如 無有滅. 眞如本有不從緣生... 중략... 故知自心本來不生不滅.”

홍인의 선법에서 심게 작성의 지시 의도는 선종의 돈오의 종지를 후대로 잘 전수하는 것이며, 이것은 한자로 된 심게의 완성을 위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한자로 된 중국선의 완성이 없으면 선종이 인도에서와 같이 존립을 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인도에서 심법은 교법의 구전을 중심으로 전수되다가 현재 소멸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홍인이 대중들에게 『금강경』을 읽게 한 뜻은 혜능이 『금강경』 소리를 듣고 홍인이 있었던 쌍봉산으로 찾아오게 만들기 위해서였다. 즉, 홍인이 혜능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혜능이 오자 첫째로 던졌던 질문 또한 혜능에 대한 가르침이었으며, 방앗간으로 보낸 후, 방앗간에서 울력을 하면서 8개월을 보내게 한 것도 홍인의 혜능에 대한 가르침이었다. 홍인이 대중들에게 완성을 이루지 못한 신수 계송을 읊도록 한 원인이 두 가지가 있었다. 첫째, 대중들이 교리와 신수의 가르침에 익숙하였던 점을 간파, 아직 심(心)에 전달이 완전히 되지 않는 미완성의 계송을 읊도록 하여, 대중들이 혜능의 심게(心偈)를 들었을 때, 혜능의 불이법문의 문에 들어간 요지를 느끼게 만든 것이다. 동산의 산문에서의 대중적인 이해는 곧 중국전반의 대중들이 심게를 이해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둘째, 신수가 문장과 교리에 밝았지만 신수가 완성하지 못한 그 부분이 그 당시 중국 불교가 완성하지 못한 인도선의 한자문화권의 언어적 완성에 해당되는 불이법문의 완성이었다. 신수는 교리로써는 당대 최고의 선사로써 칭송받은 사실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신수는 불이법문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다. 한자(漢字)의 한자(一字), 한자(一字)의 완성이 곧 인도선의 중국선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홍인의 뜻대로 혜능은 간파를 하여, 신수의 계송 가운데, 불이법문의 문에 들어가지 못한 부분만을 정확히 바로 잡아서, 불법의 문안으로 들어간 것이었다. 혜능이 신수의 계송을 완전히 다른 시로 바꾸지 않은 것은 홍인의 이러한 뜻을 알았기 때문이다. 오조 홍인이 혜능에게 심게를 작성하여 6조의 자리를 계승시켜 준 것은 두 가지 원인이 있었다. 첫째, 당나라 시문화가 왕성한 절정기에 있어서 시문학으로 6대조를 계승하더라도 대중의 반목을 받지 않는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었다. 둘째, 그 당시 보리달마대사로부터 인도선이 전수되어져 중국에 왔지만, 아직 이조 혜가, 삼조 승찬, 사조 도신, 오조 홍인을 거치는 동안 완전한 한자문화권의 선으로 완성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오조 홍인은 간파를 하여, 혜능에게 심게를 작성하도록 한 선법을 펼친 것이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홍인의 선법의 가르침을 <표 12>로, 홍인의 심게 작성 지시의 의도를 <표 13>으로 해석하여 표로 제시하였다. 혜능의 전체 생애에 영향을 미친 홍인으로부터의 지도법을 정리하면 <표 12>와 같다.

〈표 12〉 심우도로써 본 홍인의 선 수행 지도법

No	도	홍인의 지시사항	敦煌本『壇經』	혜능의 시기		『壇經』
一	未牧	『금강경』을 독경하라.	客答曰：「我於蘄州黃梅縣東馮茂山，禮拜五祖弘忍和尚，現今在彼，門人有千餘衆。我於彼聽見大師勸道俗，但持《金剛經》一卷，卽得見性，直了成佛。」	『금강경』	인도선	p.337a
二	初調	어떻게 부처가 된 단 말인가?	大師遂責惠能曰：「汝是嶺南人，又是獼獠，若爲堪作佛！」	심	 심계완성에 의해 漢字로 禪완성	p.337a
三	受制	홍인의 선문답	大師欲更共語，見左右在旁邊，大師便不言	계		p.337a
四	廻首	방앗간으로 보내라.	遂發遣惠能令隨衆作務	의		p.337a
五	馴伏	혜능의 선문답	惠能於碓坊踏碓八个餘月			p.337a
六	無碍	게송을 짓게.	各作一偈呈吾.	제		p.337b
七	任運	게송을 독송하라.	弘忍曰：「汝等盡誦此偈者，方得見性，依此修行，卽不墮落。」	작		p.337c
八	相忘	법계전수	其夜受法	心 偈		p.338a
九	獨照	심계에 조복 (혜순)	便傳法惠順，惠順得聞，言下心開，能使惠順卽却向北化人.	『단경』	중국선	p.338a
十	雙泯	『단경』	(심우도 10게송의 쌍泯 4구: 叢) 猶如大海，納於衆流，小水大水，合爲一體，卽是見性.			p.340b

『단경』에 기록된 심계 작성 지시의 의도의 뜻을 정리하면 아래 〈표 13〉과 같다.

〈표 13〉 作偈를 지시한 홍인의 선법(禪法)에 대한 해석

분 류		내 용		
원 인		중국선종사에서 혜능의 견성으로 신수의 완성되지 못하였던 교리적 해석의 불성사상과 반야사상의 완성이 요구되었다. 즉, 견성하지 않고는 정혜일치가 되지 못하므로, 불성을 근본으로 한 반야의 지혜가 나오지 않아서 불성사상과 반야사상을 통합하여 불이법문의 문을 투과할 수 없었다.		
과 정		신수의 계송으로 불성사상과 반야사상을 독립적으로 제시하여, 한자로 적은 후 혜능이 불성사상과 반야사상을 심계(心偈)로 제작하여 불이법문의 문을 투과하여 불성사상과 반야사상의 통합을 완성시켜 중국선을 완성하게 된다.		
결 과		심계의 신수 계송과 달라진 부분에 홍인의 대의가 적혀지게 되었다.		
弘忍禪法		신수의 계송으로 완성하지 못한 불법의 문 앞에 서 있었던 인도적 중국선은 혜능이 작성한 심계로써 불성사상과 반야사상의 통합함과 동시에 불이법문의 문을 투과하여 한자로 완성된 선의 중국선을 완성하게 된다.		
전 · 후 역사적 변화	전	중국선의 완성이 목적	교종과 선종	가사와 발우전수
	후	중국 선종사의 선사상은 반야사상의 완성을 기반으로 완성된 실천적 조사선의 발전으로 문화가 종교를 이끈 역사상 유례없는, 같은 종교아래에서 새로운 문화를 이룬 중국선종의 역사적 선문화가 탄생, 오늘날까지 선문화가 전 세계의 문화적 궁극적 목적지점으로 인류에게 길을 제시하게 되었다.	선종이 선문화로써 불교 전반을 포섭함	전법계 전수

참고문헌

〈원전〉

- 『大正藏』: T
『卍新續藏』: X
『嘉興藏』: J
『金剛經』 第1卷(T8).
『金剛經解義』 第2卷(X24)
『景德傳燈錄』 第5卷 (T51)
敦煌本『六祖壇經』(T48)
『傳法寶紀』(T85)
『普明禪師牧牛圖頌』 第1卷(J23)
『十牛圖頌』 第1卷(X64)
『十牛圖和頌』 第1卷(X64)
『六祖大師法寶壇經』 第1卷(T48)
『牧牛圖』 卷1(X113)

〈단행본〉

- 곽암. 『십우도』. 서울: 경서원. 2003
이기영. 『廓庵의 十牛圖』. 서울: 한국불교연구원. 1995
장순용. 『禪이란 무엇인가 : 十牛圖의 사상』. 서울: 세계사. 1992
정성본. 『中國禪宗의 成立史 研究』. 서울: 민족사. 2000
정유진. 『(敦煌本)六祖壇經 研究』. 서울: 경서원. 2007
최현각. 『禪學의 이해』. 서울: 여시아문. 2002
인순 저. 이부키 아츠시 일역. 정유진 한역. 『중국선종사』. 서울: 운주사. 2007
요코야마 고이츠 지음. 장순용 옮김. 『십우도·마침내 나를 얻다』. 서울: 들녘. 2001
스즈키 다이세쓰 지음. 이목 옮김. 『선이란 무엇인가?』. 서울: 이론과 실천. 2006
柴山全慶 著. 『十牛圖』. 東京: 弘文堂. 1941
柴山全慶 解説. 直原玉青 畫. 『禪の牧牛圖』. 大阪: 創元社. 1975
謙田茂雄 著. 鄭舜日 譯. 『중국불교사』. 서울: 경서원. 1996
Broughton, Jeffrey L., *The Bodhidharma Anthology: The Earliest Records of Ze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9.
Daisetz Teitaro Suzuki, *Manual of Zen Buddhism*, Kyoto: Otani University, 1935.
Dumoulin, Heinrich, *Zen Buddhism: A History. Volume 1: India and China*, Bloomington:

- World Wisdom Books, 2005.
- Harvey, Peter, *An introduction to Buddhism. Teachings, history and practic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 Lusthaus Dan, *Buddhist Philosophy, Chinese*. In: Routledge Encyclopedia of Philosophy, Index, London: Taylor & Francis, 1998.
- McRae, John R, *The Northern School and the Formation of Early Ch'an Buddhism*,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86.
- McRae, John, *The Platform Sutra of the Sixth Patriarch, Translated from the Chinese of Zongbao*, Berkeley: Numata Center for Buddhist Translation and Research, 2012.
- McRae, John, *Seeing Through Zen*, California: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3.
- Richard P. Hayes, *Buddhist Philosophy*, Indian, The shorter routledge encyclopedia of philosophy, New York: Taylor & Francis, 2005.
- Warder, AK, *Indian Buddhism*, Delhi: Motilal Banarsidass, 2000.

〈논문〉

- 김남희, 「十牛圖 研究 : 廓庵十牛圖를 중심으로」(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6)
- 金雲學, 「十牛頌에 대한 考察」, 『佛敎學報』 제 16집(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1979)
- 南桂元(慧明), 「尋牛圖의 禪思想 研究」(東國大學校大學院 佛敎學科 碩士學位論文, 2015)
- 오선아, 「十牛圖 研究」(동국대 불교문화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유윤빈, 「尋牛圖 研究」(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전석현, 「禪畫에 관한 研究 : 廓庵禪師 十牛圖를 중심으로」(동국대학교 불교문화대학원 불교예술학과 석사학위논문, 2013)
- 김호귀, 「조사선에서 깨침의 속성과 그 기능」, 『불교학연구』 제 56집(대구: 불교학연구회, 2006)
- 김호귀, 「선문답의 현대적 해석 방식」, 『선학』 제 26집(대전: 한국선학회, 2010)
- 김호귀, 「선종의 법맥의식과 전등사서의 형성」, 『불교학보』 제 68집(서울: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2014)
- 신명희, 「깨달음과 교화에 관한 소고(小考) - 십우도(十牛圖)의 입전수수(入纏垂手) 사상을 중심으로 -」, 『한국불교학』 제 80집(서울: 한국불교학회, 2016)
- 신명희, 「십우도와 목우도의 비교 고찰」, 『동아시아불교문화』 제 89집(부산: 동아시아

불교문화학회, 2018)

안호영, 「선불교(禪佛敎)와 평화의 두 원천: 『금강경(金剛經)을 중심으로』, 『종교교육학 연구』 제 59 권(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18)

정성욱, 「선문답의 원리에 대한 고찰」, 『한국불교학』 제 58집(서울: 한국불교학회, 2010)

정진희(혜달), 「공안의 표현형식과 지도법의 변화 (1)」, 『한국불교학』 제 47집(서울: 한국불교학회, 2007)

정진희(혜달), 「공안의 표현형식과 지도법의 변화 (2)」, 『한국불교학』 제 49집(서울: 한국불교학회, 2007)

Andrew M. McKinnon, “Metaphors in and for the Sociology of Religion: Towards a Theory after Nietzsche”, *Journal of Contemporary Religion*, University of Aberdeen, Volume 27, 2012.

Religion East & West, “Sutras with Translators’ Introductions: The Platform Sutra of the Sixth Patriarch Ukiah”, *Institute for World Religions*, ISSUE 12, January 2014.

Schlütter, Morten, “Transmission and Enlightenment in Chan Buddhism Seen Through the Platform Sūtra”, *Chung-hwa Buddhist Journal* 20, Taipei: Chung-Hwa Institute of Buddhist Studies, 2007.

〈Dictionary〉

Eedward C., *The shorter routledge encyclopedia of philosophy*, New York: Taylor & Francis, 2005.

Encyclopedia Britannica, *Encyclopaedia Britannica*, Chicago: Encyclopaedia Britannica, 1971.

Keown, D., *A Dictionary of Buddhism*, NY: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King, S B, *Buddha Nature*, New York: Suny Press, 1991.

Longman Group Limited, *Longman dictionary of contemporary English*, London: Longman, 1978.

원고접수일: 2019년 11월 29일 심사일: 2019년 12월 10일 게재확정일: 2019년 12월 19일

연구자 소개 : 신지하

① 전공: 불교학 선사상 / 소속과 직위: 동국대학교(경주) 일반대학원 박사 수료

② 관심영역: 선(禪), 영문학

③ E-mail: syw11250@hanmail.net

Abstract

The Study on The Description of Realization about
The Ten Ox-Herding Pictures
- The Hidden Meaning in the Direction of Making Stanza from Hongren -

Shin, Jiha
Dongguk Univ.(gyeongju)

The title of this paper is The Study on The Description of Realization about The Ten Ox-Herding Pictures. The subtitle of this paper is The Hidden Meaning in the Direction of Making Stanza from Hongren. This thesis suggests the new analytical approach to the contents of the real reason and secret fact which is not revealed in the another thesis and book on the study of The Platform Sutra. We do not know exactly about the person in the name of Hui-neng in the The Platform Sutra. The reason of this is from the teaching of Hongren. The thesis about the truth and secret about Hui-neng is not revealed from the history with the letter in the reason of difficulties that the meaning of the Seon cannot be represented with the letter. In this thesis I will describe this difficulties of representation of letter to analyze the real meaning of the The Platform Sutra. In this paper two things of the reason about the stanza order from the 5th Patriarch Hongren was described in the content of this thesis. Why does this Seon Master Hongren order the making the stanza to his pupils? Why does this Seon Master Hongren make this order in his life time in the history of China? Any thesis about Hui-neng and Seon Master Hongren was not try to find this fact of history with sincere mind of faith. This paper suggested the hidden meaning of Hongren to make Stanza to Hui-neng in the Table 12 and Table 13 with the using the Metaphor of the Ox-Herding Picture with The Platform Sutra.

Key Words: The Ten Ox-Herding Pictures, Stanza, Hui-neng, Hongren,
The Platform Sutra